

# 부산 책문화 1번지... 매머드급 장서 규모,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문화공공재 '책' 기증사업도 활발,  
유명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지성의 마당' 펼쳐

**유흥가 속에 피어난 1.5평 '책꽃' ... 40년 역경 담은 '인간승리' CEO**  
“국내 내로라는 작가들이 부산에 오면 주무대가 되는 공간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열에 열, 부산 시민들은 “영광도서”라는 답에 공감한다. 조정래, 이희수, 김훈, 신경숙, 공선옥 등 유명 문인부터 여성학자 오숙희, 개그맨 장두석, 방송인 최화정, 박경림 등 유명인까지 포함해 15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서점에서 부산 독자들을 만났다. 책이 있는 순수 서점 공간만도 800여 평, 유통센터 600여 평, 주차장 1,000여 평에 강연회, 토론회, 갤러리 등 문화스페이스까지 따지면 지역 서점으론 초대형인 셈이다. 지난 1988년 개점한 100여 평 규모의 남포점까지 치면 영광도서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지역 서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영광도서의 김윤환(56) 대표는 “부산의 대표서점으로 손꼽히는 이 서점이 1.5평의 작은 공간에서 그 시작을 알렸음을 이하는 이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1966년 2월 1일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고향인 경남 함안 배산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교 진학을 못하게 됐지요. 그때부터 헌책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1968년부터 1.5평짜리 서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상고, 태화극장, 육군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웅기종기 모여 있던 20여 곳의 서점들은 곧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갑작스런 유흥가의 번창에 밀려나게 된 것. ‘동지’들이 하나씩 자취를 감추니 아직 어린 나이었던 김 대표 역시 “여기서 접는

게 현명한 것인가?” 자문하며 망설였다. 그러나 고민 끝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책방 아르바이트 시절부터 책과 함께 평생을 살아보자는 의지가 일종의 사명처럼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타임머신을 타듯 40년 후로 훌쩍 넘어와 보면 김 대표는 ‘인간극장형’이라 불리는 저수성가형 CEO인 셈이다. 그동안 고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영광도서 주변이 서울의 인사동, 동숭동 못잖은 문화명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역경은 소중하게 곱씹는 추억거리가 됐다. 특히 김 대표는 서점 규모도 규모지만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기증사업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책은 곧 문화상품’임을 강조하던 김 대표가 책 기증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1975년. 통영 육지중학교를 시작으로 일반학교는 물론 교도소,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 곳 등 문화소외지역에 줄곧 책을 전달해 왔다. 서점이 나서 책을 기증한다는 사실에 다들 의아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제 철학은 서점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은 상품이지만 문화 공공재이기도 하니깐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요즘 불황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책 사러 오지 않는 독자를 미워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수준 높은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점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요.”



100회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광도서토론회.  
국내 쟁쟁한 작가진들도 두려워할 만큼 신랄한 비평이 오가는 공간이다.

**유명 문인들도 긴장하는 토론회, 평론가 못잖은 신랄한 비평 쏟아져**

실제로 영광도서는 남다른 기획력으로 고객 신뢰를 쌓았다. 책 기증사업도 그렇지만 김 대표는 도서관에서나 간간히 개최되던 독서토론회 및 저자 초청 강연회를 팔 걷고 기획했다. 1978년 독서캠페인운동방송을 한 게 시초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지방이라는 한계를 과감히 벗고 본격적으로 저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어 무료강좌인 서예, 일본어, 한문, 중국어, 소설학당 등 각종 교양 강좌 프로그램, 그리고 8년 전부터 영역을 넓혀 '영광도서갤러리'를 열어 다양한 전시창구를 무료로 제공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에는 영광도서가 문화부 지정 부산지역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1990년부터 본격 개최된 영광도서독서토론회만큼 특색 있는 고유의 콘텐츠는 없다고 자부한다. 웬만한 포털사이트에서 '영광도서'를 검색해 보면 블로그상에 '영광도서독서토론회' 소식이나 관련 자료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인사나 주고받으며 스타 모시기 형식으로 책을 홍보하는 토론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1993년 3월 17일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올 9월 28일에 하는 토론회가 105회째 되는 토론회입니다. 흥미로운 건 국내 대표작가분들도 이 토론회를 은근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학을 매하는 부산 독자들 수준에 사롭지 않습니다. 평론가 못잖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독자들이 많지요"

김 대표 말처럼 토론회에 참가한 작가들의 말을 빌려도 이곳 독서토론회가 부산 독자들의 잠재된 '끼'를 발견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신경숙 씨는 "수준 높은 독자와 저자의 독특한 대화방식이 돋보인다"며 "매번 긴장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소설가 K씨는 평론가 및 독자들의 비평적 발언에 은근히 기가 죽었으나, "이런 식의 토론이라면 앞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는 후문이다. 2001년에 영광도서를 찾은 이문열 씨는 지정 토론자로 나선 노혜경 시인과 뜨거운 설전을 펼쳐 문단의 화젯거리를 만들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소설가 김영현 씨는 뒷풀이에서 "토론회에 다녀온 선배 작가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충고해 줬

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수의 작가들은 토론회에 출연, 맏짠 비평정신을 가진 독자들 때문에 진땀을 뺐지만 그 덕에 스릴 넘치는 시간을 즐겼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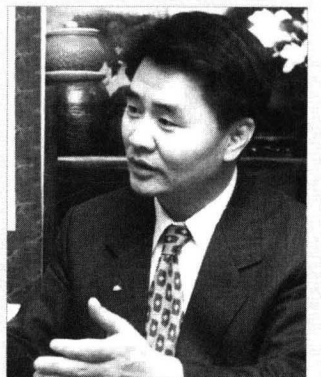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소극장·책박물관 등 '지성인 타운' 설계**

한편 독자들의 독서열을 수렴해 영광도서는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구색 맞추기 홈페이지보단 책 보러 왔다가 다른 것까지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뜻을 담아 서점 측이 제공하는 책 소개뿐 아니라 일부 작가에게 원고를 맡겼다. 현재는 문학평론가 남성우 씨, 이우상 씨, 소설가 정찬주 씨가 각각 독서일기, 캠퍼스 라이프, 다인기행 등 책문화와 연계된 글을 연재하는 중. 또한 김운환 대표 역시 '삶과 생각' 이란 코너로 독자들에게 전할 말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직원들은 온·오프 서점 안팎을 정비하며 자연스럽게 출판 전문가가 됐다. 오프라인에서도 독서토론 및 이벤트 프로그램, 사인회 등을 기획, 추진해야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출판뉴스 업데이트, 독자 우수서평 선정 및 영광 신인작가 선정 등 쉴 새 없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 김 대표는 "녹록찮은 일이지만 독자의 욕구를 포용하는 데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가장 어려웠을 때를 묻자 김 대표는 "항상 현재 이 시점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솔직한 심정으로 독서를 저조, 온라인 서점의 무분별한 할인판매, 재벌형 대형서점의 무분별한 지방 지점 개설, 경제 불황 지속 등 요즘이야말로 최악의 난관기다. 물론 60여만 종의 장서를 보유하고, 4,000여 곳 출판사와 직거래하며 연매출 100억 원 대를 자랑하는 매머드급 서점이 무슨 걱정이냐고 되묻는 이도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방심하거나 지금에 안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최근 교보문고와 영풍문고가 서면, 해운대에 자리를 잡았고, 서면에 동보서적, 남포동에 남포문고, 문우당 서점, 대연동에 면학서점, 부산대에 청하서림, 북스리브르 등 여러 서점이 포진해 있는 만큼, 그들과 페어플레이를 하며 부산의 독서문화를 가꿔나가고 싶다. 김 대표는 또한 "언젠가 책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책과 연극, 영화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소극장을 만들어 영광도서 일대를 '지성인 타운'으로 건설하고 싶다"고 밝혔다. **■**

취재\_김철연 기자 | 사진\_영광도서 제공



부산 영광도서  
김운환 대표.